대교협에 대한 산업계의 기대

임 관
삼성종합기술원 회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창립 20주년을 축하하며, 다시 한번 우리의 교육 현실을 돌아보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우리 모두의 지혜를 모아, 교육의 백년대계를 세우고 실천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주위의 많은 분들을 만나고 매스컴을 통해서 들어보면, 매년 수학능력시험이 쉬었느니 어려웠느니를 따지고, 자식들의 사교육비가 과다하여 살기 어렵다고 이민을 가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기러기 아빠가 되어 가족과 떨어져 지내야만 하는 오늘의 교육 현실을 보며, 정말 이 시대의 주역으로서 너무나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뿐이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생각하고 고민해야 할지 본인도 잘 모르겠으나, 하루아침에 모든 상황이 좋아질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관련된 모든 기관과 사람들이 자기 위치에서 제 역할을 잘 하기 위해 보다 노력할 때, 우리가 원하는 교육 시스템이 체계를 잡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런 차원에서 본인은 짧은 소견이나마 본 지면을 통해 대학교육협의회에 몇 가지 바람을 얘기하고자 한다.

첫째, 대학교육이 자율성, 다양성을 가지고 특성화할 수 있도록 대학교육협의회가 주도적인 가이드 역할을 해 주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각 대학들을 보면 국 · 공립이든 사립이든 학교경영이나 학사행정에 있어서 자율성이 부족한 것으로 생각되므로 정부의 규제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대학은 교육, 연구, 서비스의 세 가지 기능 중에서 연구보다는 교육에, 또는 연구나 교육보다는 서비스에 중점을 두는 등, 세 가지 기능 중에서 한 두 가지에 집중함으로써 사회적 요구에 효율적으로 부응하는 교육기관이 되고자 노력해야 하며, 우리나라도 소수의 연구중심대학을 육성하는 한편, 일반 대학에 대해서는 대학마다 나름대로의 특성을 살

려 스스로 자리 메김을 해 나갈 수 있도록 보다 폭넓게 다양성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대학들의 교육과정은 대부분 비슷하고, 많은 대학들은 명문 대학들의 프로그램을 단순히 따라 하고 있으며, 결국 이 같은 시스템 속에서 배출되는 학생들은 모두 같은 지식구조와 기술을 갖게 되어 시장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모든 대학에서 동일한 학과를 개설하고 운영할 필요는 없다. 각 대학은 비교우위 분야를 중심으로 과감하게 학과를 재구성하고, 자원을 집중함으로써 어느 한 분야에서 만큼은 다른 대학을 능가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대교협은 자체적으로 이러한 가이드를 해줄 수 있는 전문적인 기능을 갖추어 가기를 바라며, 대학과 정부정책의 가교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우리 기업의 입장에서는 잘 훈련되고 숙련된 기능을 가진 근로자도 필요하지만, 창의력 있는 기술자도 절실히 요구되며, 이런 인력을 대학에서 잘 배출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둘째, 대학들이 유연성을 가지고 환경에 적응하는 커리큘럼을 개발할 수 있도록 산 · 학 · 연의 가교 역할을 해주기 바란다.

우리 기업의 입장에서는 잘 훈련되고 숙련된 기능을 가진 근로자도 필요하지만, 창의력 있는 기술자도 절실히 요구되며, 이런 인력을 대학에서 잘 배출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예를 들면, 현재 전세계적으로 공과교육 개선에 대한 공통된 주문은 학생들의 창의력과 기업가 정신, 의사소통 능력, 팀웍 능력, 학제적 사고 능력 등을 배양시키는 프로그램을 구축해서, 급속히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설을 세우고, 모형화하고, 실증하는 연구의 프로세스에서도, 가설을 세우는 단계에서부터 창의성의 중요성은 새삼 강조할 여지가 없다. 기업체에서도 이러한 창의력을 기본으로 한 인력이 있어야 비로소 기술의 한계돌파(Breakthroughs)를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대교협이 이러한 사회와 시장의 요구를 대학들이 추구하는 방향과 연계시켜 주는 역할도 수행해 주었으면 한다.

대교협은 단순히 회원 대학들의 이익 대변 창구를 담당하는 역할을 벗어나 보다 개방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발전과 관련된 정책 및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제시해 나가기 바란다.

셋째, 대학뿐만 아니라, 각계 각층의 의견들을 수렴하여 고등교육의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도 수행해 주기 바란다.

대교협은 단순히 회원 대학들의 이익 대변 창구를 담당하는 역할에서 벗어나 보다 개방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발전과 관련된 정책 및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제시해 나가기 바란다. 이를 위해서는 회원 대학 및 관련분야 정부부처, 시민 등을 연결하는 네트워킹의 허브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하며, 고등교육에 관심이 있는 각계 각층의 모든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의사소통 구조와 논의의 장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초 · 중 · 고등학교 교육과 연계하여 대학교육 체제를 함께 고려한 전체 교육 메커니즘을 고민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이러한 틀 속에서 우리나라의 교육개혁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중심점에 대교협이 서 주길 진심으로 바라는 바이다.

넷째, 보다 넓은 시각으로 대학들의 국제적인 협력을 유도해야 한다.

교육시장 개방이 머지 않은 시점에서, 수동적이고 소극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면,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전환시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우리가 발빠르게 세계적인 대학들을 유치한다거나 국제적 기준에 맞는 경쟁력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공동 개발하여 운영한다면, 학생의 해외 유출을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 대학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거나 우리의 교육 시스템만을 고집하게 된다면, 우리가 한 단계 발전될 수 있는 기회를 위기로 만들 가능성이 높다.

대학교육협의회가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인재양성과 더불어 교육개혁의 구심점 역할을 해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린다.

임 관
미국 아이오와 공대 교수, 한국과학기술원장,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자문위원 등을 역임하였다. 현재 삼성종합기술원 회장, 산업발전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 중이다.